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동화 분야

작품 제목

4학년 청림이의 일기

동화 본문

날짜 : 2023. 3. 2. 목요일

제목 : 내 키가 좋아요.

난 4학년인데 친구들보다 키가 작다. 9시만 되면 이불 속으로 '쓱' 들어가는데, 내 키는 늘 반에서 1번이다. 간혹,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지나가시던 할머니께서 '네가 동생이니?' 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키가 작아 좋은 점도 있다. 무엇보다 버스를 탈 때 내가 다른 어른들에 섞여 돈을 내지 않아도 버스 아저씨는 뭐라 하지 않으신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아저씨가 무서워 슬그머니 시선을 피할 때 '두근두근', '쿵쿵쿵' 하는 마음의 소리는 내 귀에 들려도,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를 반겨준다. 아직도 내가 유치원생으로 보이냐 보다.

4학년이 된 첫날, 오늘 다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역시나 무사통과.

그래서 나는 매번 용돈을 아낀다. 내 용돈은 일주일에 2,000원, 버스요금 한 번만 아껴도 분식점에서 떡볶이 한 컵은 먹을 수 있다.

날짜 : 2023. 5. 5. 금요일

제목 : 어린이날, 아빠의 노란 『소고기 카드』

아빠가 아침에 노란 카드를 높이 들고 선언하셨다.

"오늘이다. 알지?"

"야호!" ' 짹짹' 오빠와 나는 손뼉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어린이날은 우리 가족이 매년 식당에서 소고기 먹는 날이다. 아빠에겐 늘 소고기를 사는 노란색 카드가 있다. 나는 그 카드를 『소고기 카드』라고 부른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다. 집에서 구워 먹는 고기보다 식당에서 먹는 고기는 더욱더 꿀맛이다.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비빔냉면을 먹은 기억을 하면 지금도 입에 군침이 '사르르' 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기를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장소도 몇 군데 정해져 있다. 평상시에는 영수증을 버리시는 아빠가 그날만큼은 휴대폰으로 영수증 사진을 꼭 찍으신다.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나보다.

몇 개 식당 중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주는 곳이 있어서, 나는 늘 거기를 가자 한다. 아이스크림은 여러번 퍼먹을 수 있어서 오빠랑 난 매번 누가 누가 더 높게 쌓냐 내기하며 바닐라, 초코, 딸기 번갈아 한 스푼씩 쌓는다.

'오늘은 꼭 내가 이겨야지!'

날짜 : 2023. 8. 1. 화요일

제목 : 나만 아는 비밀

윤이네 가족과 여행을 간다. 윤이는 아친딸(아빠 친구의 딸)이다. 아빠와 대학교 친구다. 윤이와 나는 동갑이고 오빠들도 나이가 비슷해서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데, 어른들도 그런 것 같다. 윤이는 나와 취향도 비슷해서 만날 때마다 선물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떨 땐 둘 다 같은 물건을 사 와서 '깔깔깔' 웃었던 적도 있다. 여행계획이 잡히면 그때부터 우리는 용돈을 모은다. 1,000원 가게에서 서로가 선물 받은 모습을 상상하며 물건을 사는 재미는 쏠쏠하다.

오늘 윤이에게 매니큐어를 사주려고 이색 저색을 만지며 놀다 그만 깨고 말았다. 얼른 '두리번두리번' 둘러 보았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두근두근' 거렸다. 1,000원이면 3일 치 용돈이 날아가는 셈이다. 저 멀리 아주머니께서 물건을 진열하고 계셨다. 내 맘속의 검은 물감이 내 마음을 덮는 것 같았다.

'아무도 몰라. 그냥 다른 칸으로 얼른 자연스럽게 이동해.'

나는 조용히 옆의 칸으로 움직여 다른 물건을 보는척하다가 아주머니께서 멀리 가셨을 때 선물도 못 사고 뛰쳐나왔다.

날짜 : 2023. 8. 4. 금요일

제목 : 맘에 걸리는 선생님의 말씀

오늘 선생님께서 방학 특강 동아리 시간에 질문을 하셨다.

"너희가 마술쇼를 갔는데 친한 친구가 늦게 온다면 그 친구를 위해 앞자리를 맡아 두는 게 옳을까 안 맡아 두는 게 옳을까?"

"실컷 놓고 와서 숙제하기 싫어도 꼭 참고 한 아이의 숙제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해, 칭찬받는 것은 바른 행동일까?"

선생님께서서는 각자 생각을 발표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수업을 마칠 때 선생님께선 말씀하셨다.

"애들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렴. 심장이 '두근두근'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신호를 마음이 보낼 땐 그 행동을 정지! 알겠죠? 마음속에 답이 있어요. 마음이 하는 속삭임을 잘 들어 보세요."

날짜 : 2023. 8. 10. 목요일

제목 : 낯선 언니의 미소

'폰이 없어졌다! 큰일 났다.'

'얼마 전 엄마 아빠를 졸라 졸라 받은 스마트폰인데.....'친구들과도 연락이 두절. 집에 혼자 있을 때 보던 인터넷도 접속 불가. 이런 불편보다 아빠한테 혼날게 더 무서웠는데, 내 예상이 맞았다. 퇴근하신 아빠는

"너! 네 물건 제대로 안 챙겨? 그 스마트폰은 중고로 팔아도 40만원은 받는데 너 용돈 당분간 없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 '아빠는 나보다 폰이 더 소중한가보다. 내가 없어져도 저렇게 화를 내실까? 주운 사람은 더 싫다. 나쁜 사람. 주인을 찾아줘야지! 이거 완전 도둑질이잖아!' 속으로 욕했다.

며칠 뒤, 학원 간다고 대문을 나서는데, 문 밖 택배 상자 위에 내 폰이 있다.

'어 내가 여기 뒀었나?'

그때 엄마 전화가 왔다. 엄마는 상기된 목소리로,

"폰 찾았지? 1004호 사는 분이 네 폰을 주어서 우리 집 앞에 두었대."

생각을 더듬어 보니 학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 폰을 올려 두고, 랜덤 플레이 댄스를 쳤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신나게 춤을 추다가, 문이 열려 그만 폰만 두고 내렸던 게 생각났다.

‘그런데 이분은 왜 이걸 중고로 팔지 않고 돌려주셨을까?’

엄마가 퇴근하셔서 1004호 이웃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같이 가자고 했다. 벨을 누르니 예쁘게 생긴 언니가 나왔다. 수줍게 미소 짓는 언니를 보니 잠시나마 ‘나쁜 사람’이라고 욕한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가슴 속에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뜨거운 뭔가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40만 원이면 나의 몇 년 치 용돈이지?’ 갑자기 언니가 존경스러워졌다.

‘나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예쁘고 착한 언니가 돼야지!’

날짜 : 2023. 8. 14. 월요일

제목 : 뿌듯했던 날

남해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물안경을 끼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엄마는 늘 모래사장의 파라솔 아래에서 책을 읽으시고, 물속에서 노는 건 오빠와 아빠 울 셋이다. 튜브로 파도를 타는데 바닷물 속, 옆에서 놀던 언니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친다.

“제 휴대폰이 바다에 쓸려갔어요, 물안경 있으시니, 물속에 있는지 좀 봐주세요.”

파도가 너무 세어 방수파우치 고리가 떨어졌나 보다. 언니는 줄만 목에 걸려있다. 몇 번을 찾았지만 폰은 안보였고 언니들도 포기했는지 사라졌다.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남해 바닷물은 차가웠다. 아빠는 모래짐질을 하시며,

“빙하가 녹는다더니 정말인가, 예전에 남해 바닷물은 이렇게 차지 않았는데..... 그나저나 아까 그 여대생들 여행와서 폰을 잃었으니 여행비 50만원은 날아간 셈이네. 쫓쫓쫓” 하셨다.

잠시 후 우리 셋은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 파도를 타면서도 아까 언니들 생각이 나서 의식적으로 자꾸 바닥을 보게 되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 저게 뭐지?’ 물속 바닥에 휴대폰 비슷한 것이 보였다.

“찾았다. 찾았어!”

우리는 마치 보물을 찾은 듯 손에 휴대폰을 들고, 해변으로 정신없이 뛰쳐 달려 나왔다. 아까 그 언니들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바닷가에 사람들로 넘쳐난다. 휴대폰 첫 화면에 연락처가 있었다. ‘걸어볼까 말까.’ 막상 언니 얼굴이 안 보이니 평소에 갖고 싶었던 접이식 폴더 폰이 탐 났다. ‘두근두근 쿵쿵쿵’ 갑자기 내 심장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나의 마음의 소리, 마음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난 얼른 고개를 세차게 휘저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야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인근 경찰서에 폰을 맡겼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하는데 폰 주인한테서 전화가 왔다. 폰을 찾았나보다. 자기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못 즐기신 것 아니냐고, 덕분에 마지막까지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말 고맙다고 여러번 인사를 했다. 언니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엄마 전화기를 통해 들으니 가슴이 뿌듯하고 벅찼다. 문득 얼마 전 내가 폰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의 기뻐던 감정과 그때 그 언니의 미소가 떠올랐다.

‘거봐~ 너도 할 수 있잖아’

진주 같은 은은한 무지갯빛 언니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날짜 : 2023. 9. 1. 금요일

제목 : 이거 너무하잖아.

2학기 시작이다. 선생님께서 한 달 뒤 반장선거가 있으니 준비할 친구는 미리미리 연설문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작년에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 재작년에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 세어보니 가만히 있어선 반장이 못될 것 같다.

'반장이 되면 엄마가 용돈 10만원을 준다는데.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하는데, 은혜가 허겁지겁 달려와 날 불렀다.

"청림아 청림아, 너 이번에 반장선거 나가? 안 나가면 가희 밀어주자. 가희가 이번에 나간다는데, 자기 뽑아주면 2천원씩 준대."

"응? 자길 뽑아주면 돈을 준다고? 그건 정당한 반장선거가 아니잖아~ 그런데 어딴어?"

나도 만약 친구들에게 가희처럼 돈을 돌려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 전체가 30명이니 2,000원씩 쥐도 나한텐 4만원이 남는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거렸다. 며칠 전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심장이 두근두근 얼굴이 화끈화끈 하는 신호를 마음이 보낼 땐 그 행동을 정지!"

'청림아. 그래..... 정지하자. 정지!'

날짜 : 2023. 9. 11. 월요일

제목 : 내 마음의 소리

난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급식 배식, 우유 당번, 선생님 심부름 등을 도맡았다. 반장 연설문도 정성들여 준비했지만, 웬지 뇌물을 돌린 가희가 반장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 놀랍게도 내가 반장이 되었다. 나도 결과에 깜짝 놀랐다. 득표수도 꽤 차이가 났다. 은혜가 와서 귓속말로 속삭였다. "나도 너 뽑았어~" 그리고는 눈을 찡긐했다. 뭔가 당당하게 반장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날 믿고 뽑아준 우리 반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다.

'부모님께서도 엄청 기뻐하실 테고, 용돈도 받겠지?'

새로 나온 '파인애플 탕후루'가 맛이 궁금하고 먹고 싶었는데, 이번에 사 먹을 수 있겠다.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 신이 났다. 그때 선생님의 환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음속에 답이 있어요. 그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는 정지!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날짜 : 2023. 10. 4. 수요일

제목 : 내 생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친구들과 슬라임 카페에서 생파(생일파티)를 한다. 은혜, 가희, 나 셋이 가기로 했다. 버스를 타는데 나처럼 키가 작은 가희가 은근슬쩍 어른 옆에 끼여 타려고 시도하는 게 보였다. 난 재빨리 가희보다 앞서 타며 교통카드를 내밀었다.

"아저씨 초등학생 두 명이요."

토끼처럼 놀란 모습을 한 가희의 모습을 모른척하며, 가희의 팔짱을 꼭 끼고 열린 버스를 올라탔다.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다른 떨림이었다.

저녁은 언제나처럼 가족과 소고기집으로 향했다. 타지에 근무 중인 아빤 내 생일이라고 일부러 휴가를 내셔서 집에 오셨다. 아빠께 오늘 있었던 일, 최근 반장선거 사건을 얘기했다. 아빠는 흐뭇해하시며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셨다. 오빠도 밀렸던 학교생활을 쉴 새 없이 얘기하기 바빴다.

잠시 후, 계산하시는 아빠께서 오늘은 다른 색 카드를 꺼내셨다.

“어~! 아빠, 노란 소고기 카드네요?”

아빠는 내 질문엔 답이 없이 빙그레 웃으시며,

“1004의 날 태어난 청림아 생일 축하해!”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근거림은 대체 무엇일까?’

‘나한테만 있는 걸까? 친구들에게도 있는 걸까?’

문득 궁금해져 아빠께 여쭙봤다.

“청림아,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양심이란다.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이지.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렴,

그럼 청림이 다운 삶을 살 수 있을거야.”